

제170회 임시회 폐회



중랑구의회 제170회 임시회가 7월 29일 개최되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날 처리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존치정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이며, 최성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5분 자유발언

최성식 의원(망우본동, 신내1동)

최성식 의원은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은 서울시의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기준 용적률 상향 및 역세권 건축밀도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당초보다 56%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축세대가 당초 6,400세대에서 2,300세대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며, “2009년 협의당시에는 학생증가 예상수요 부족으로 학교부지 추가확보의 필요성이 없었지만 개발여건이 변함에 따라 800여 명의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소식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이윤재) 소속 위원들은 지난 8월 9일 중랑구약사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고, 심야약국과 당번약국 운영, 불용의약품 처리 협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서인서) 소속 위원들은 지난 7월 26일 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새우개마을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갖고, 도로,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 · 정 · 질 · 문



최성식 의원(망우본동, 신내1동)

▶가로등을 친환경 절전형 또는 태양광 발전 가로등으로 교체할 의향은 있는지?

Q. (최성식 의원) 우리 중랑구에는 공원과 놀이터, 마을마당 등에 설치된 가로등 수가 611개로 전기요금도 월 250만원씩 연간 3,000여 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각 공원과 놀이터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에너지절약 방안으로 전 공원에 시간과 계절에 따라 격등 점멸회로를 설치한다면 불필요한 전력소모를 방지함은 물론 예산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 중랑구 전체 가로등을 LED 조명등과 같은 친환경 초절전형 가로등으로 교체한다면 전력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전기료 절감 등 에너지절약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태양광발전시설을 가로등에 설치하여 무한정, 무공해의 태양에너지를 사용한다면 항구적인 전력공급으로 구 재정에 보탬이 됨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자원을 사용함으로써 건강을 위한 공원 본래의 조성목적과 어우러져 우리 구 이미지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가로등을 단계적으로 신소재의 친환경, 초절전형 가로등 또는 태양광발전 가로등으로 교체할 의향은 있는지?

A. (구청장)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언제 어떤 형

태로 이용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공원에는 정해진 시간대로 가로등을 점등해 놓고 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늘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가로등 격등 문제는 여름철에는 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격등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전구를 LED 전구로 바꾸면 전력요금이 1/3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신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LED 전구로 교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에서도 녹색성장시대를 대비해 2020년까지 공원에 있는 전구를 전부 LED 전구로 교체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예산 여건이 나아지면 녹색성장시대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전력사용량을 줄이겠다.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시설도 검토하고 있지만 공원지역에 설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 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사업의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은?

Q. (최성식 의원) 중랑구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위탁수수료가 연간 약 32억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음식물 폐기물, 음폐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 자원화시설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 자원화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A. (구청장) 우리 구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85t 정도로 처리비용이 연간 약 24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 지역 5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나오는 음폐수를 지금까지는 바다에 폐기했지만 2013년부터는 바다에 버릴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경기도에서 처리하는데 따른 경기도 측의 처리비용 요구에 따라 우리 구를 포함, 전 자치단체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 구는 구리시 경계의 그린벨트지역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아래 그린벨트 사용에 대한 정부 승인을 받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홍성욱의원

(면목본동, 면목2,5, 상봉2동)

▶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100% 무료화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Q. (홍성욱 의원)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전염병을 퇴치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을 100%까지 높여야 된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에 조사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 실태’ 자료에 따르면 0세부터 2세까지의 필수예방접종에서 예방접종률은 중산층 78.42%, 차상위계층 64.35%, 빈곤층 51.99%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예방접종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필수예방접